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삼릉~상선암
-------	--------

주제	세부 시나리오	
첫인사		<p>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p> <p>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이 잘 어우러져 있는 남산의 삼릉 코스를 해설할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해설사 000입니다.</p>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p>혹시 서 계시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p> <p>이곳은 옛날 신라시대 임금님이 살던 궁궐인 반월성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산이라 이름 붙여진 곳으로 금오봉과 고위봉의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산인데요.</p> <p>남산은 예로부터 서민들의 민간신앙과 불교문화가 잘 어우러져 많은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노천박물관이라 불리고 있는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p> <p>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경주 각지의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2008년부터 관리주체를 경주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p> <p>덧붙여, 경주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21개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사적형 국립공원이에요.</p> <p>현재 이곳 남산을 비롯하여 경주의 5개 지역이 ‘경주 역사유적지구’로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세계문화유산이란 유네스코에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 각국의 유적지나 건축물, 조각, 그림, 고고학적 장소를 손실이나 파괴의 위험으로부터 복구 및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문화유산입니다.</p>
절레	절레	<p>5~6월 삼릉은 하얀색, 노란색 꽃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옆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 절레나무입니다. 걸모습만 보면 “이 조그마한 것이 나무야?” 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될 텐데요. 소나무처럼 키가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는 반면에 이렇게 절레나무처럼 키가 작은 것을 관목이라고 부릅니다.</p> <p>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다가가서 절레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세요. ‘나를 만지지 마세요.’라고 경고라도 하듯 장미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습니다. 절레꽃의 향기도 한 번씩 맡아 보세요. 살짝 오이향이 나지 않나요?</p> <p>이른 봄철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새로 나는 줄기는 오이향이 나서 꺾어 먹기도 하였다고 합니다.</p> <p>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일까요?</p> <p>벌레, 곡식도 있지만 절레나무의 빨간 열매도 박새와 같은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라</p>

		<p>고 합니다.</p> <p>참! 짙레나무의 씨앗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세요?</p> <p>열매 색깔이 빨개서 새들이 하늘을 날다가도 잘 알아 볼 수 있대요.</p> <p>새들은 빨간 열매의 맛있는 과육만 먹기 때문에 새똥에는 짙레나무 씨앗이 남아 있어요. 새들이 날아 다니는 곳을 따라 짙레나무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 다니는 곳을 따라 짙레나무 씨앗이 함께 날아다니는 거죠. 새는 날아가면서 똥을 눈답니다. 새똥과 함께 어딘가에 떨어진 짙레의 씨앗은 그곳에서 싹을 틔워서 큰 짙레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p> <p>그렇기 때문에 짙레나무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씨앗을 이동 시킨답니다.</p> <p>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p>
--	--	--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소나무	<p>앞과 즐기</p>	<p>여러분, 여기가 바로 삼릉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무덤 때문에 이곳을 삼릉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곳 주위를 한번씩 둘러보세요. 굵어진 소나무도 보이고 곧게 자란 소나무도 보이죠. 이렇게 삼릉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p> <p>소나무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옛 선비들의 그림이나 글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소나무 문화라고도 합니다.</p> <p>또한, 옛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잡귀들이 못 들어오게 대문 앞에 벚짚으로 만든 금줄을 달고 거기에 소나무 가지와 잎을 걸어두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을 사용했을 만큼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나무랍니다.</p> <p>여러분, 밑에 떨어져 있는 잎을 하나씩 주워보세요.</p> <p>어때요? 뽀족한 바늘잎이 몇 개인가요?</p> <p>보시는 것처럼 바늘잎 2개가 한 묶음이 된 것은 소나무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줄기가 붉다고 적송(赤松), 육지에서 자란다고 육송(陸松)이라 부르기도 하죠. 바닷가 근처에도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 소나무는 껍질이 붉은색이지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들은 껍질이 검은색을 띠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은 솔나무라고 하여 곰솔이라 부르는데 바닷가에서 주로 자란다고 하여 해송(海松)이라고도 불러요. 곰솔도 소나무처럼 바늘잎이 2개인 데 손으로 만져보면 소나무보다는 좀 더 역세다고 합니다.</p> <p>소나무와 곰솔 이외에도 바늘잎나무 종류가 참 많은데요.</p> <p>오늘 바늘잎 개수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소나무 종류 몇 가지를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p> <p>소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늘잎 5개가 모여 나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고소한 잣이 열리는 잣나무인데요. 잎이 5개 달린 소나무라고 하여 오엽송(五葉松)이라고도 합니다. 잣나무는 껍질은 회갈색이고 소나무나 곰솔보다 잎이 약간 더 긴데 중남부지역에 많은 소나무에 비해 중부이북지역에 많이 자라요.</p> <p>그리고 길가나 산기슭에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즐기에 잎이 듕성듕성 나는 나무가 있을 겁니다. 험벗은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조림용으로 도입해 온 리기다소나무인데 이 나무는 짧은 바늘잎 3개가 모여 난답니다.</p>

		<p>이제 여러분들 바늘잎을 가진 나무들 구분할 수 있겠죠?</p> <p>애국가에 보면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이란 가사가 있을 정도로 소나무의 줄기 아랫부분은 짙은 회갈색을 띠는 데 마치 군사들이 철갑옷을 입은 것처럼 갈라져 있어요. 단, 줄기 윗부분의 나무껍질은 적갈색을 띵니다.</p>
	<p>소나무의 나이</p>	<p>소나무의 나이는 세기가 쉬워요. 굳이 나이테를 안보고도 줄기만 봐도 알 수 있답니다. 소나무는 끝눈 자람이 강해서 위로 곧게 쪽 뻗으며 자라고 해마다 옆눈이 돌려 자라기 때문에 가지층만 세어서 내려오면 소나무 나이를 쉽게 셀 수 있어요. 단, 옆눈 가지가 떨어진 흔적까지 세어야 합니다. 다 세었으면 어린나무 시기인 4년을 더해주면 소나무의 나이를 알아 낼 수 있답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소나무	소나무	<p>여러분, 숲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숨을 크게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어때요? 상큼한 나무 향기가 코 끝을 스쳐 지나가나요?</p> <p>도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교외의 푸르른 숲에 들어서면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듯하고 조금만 걷고 있어도 푹푹한 향을 맡을 수 있으실텐데, 이 푹푹한 향의 정체가 바로 ‘피톤치드’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p> <p>피톤치드는 인위적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숲의 정기(精氣)’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활엽수보다는 소나무류 같은 침엽수에서 많이 방출된다고 합니다.</p> <p>이렇게 피톤치드를 마시는 행위를 산림욕이라고 합니다.</p> <p>여러분, 산림욕이라고 들어보셨나요?</p> <p>예, 한번쯤은 다들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수욕, 일광욕과 함께 건강삼욕(三浴)이라 불리는 산림욕은 다른 말로 녹색 샤워(green shower)라고도 하는데, 산림욕은 오전 6시부터 낮 12시를 전후해서 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고요. 특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심폐기능 강화, 신경안정 및 혈압강하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p> <p>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게임 한번 해볼까요?</p> <p>서로 등과 등을 맞대고 가위, 바위, 보를 해보세요.</p> <p>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들어 올려 하늘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p> <p>자, 하늘에 무엇이 보이나요?</p> <p>선생님은 하늘을 보니까 빠죽빠죽 킴 같은 바늘잎과 동글동글하게 생긴 솔방울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p> <p>자, 그럼 이제 진 사람들은 땅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p> <p>누런 솔잎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죠?</p> <p>여러분들, 소나무 잎은 겨울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 4계절 내내 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소나무는 잎이 난 뒤 2년 후에 떨어진답니다.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새잎이 돋으면 지난해에 낳던 솔잎은 낙엽처럼 누렇게 되어 떨어지지만 새 솔잎이 그 푸르름을 간직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늘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현 잎이 떨어질 때 짙은 새잎이 나오기 때문에 잎이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여러분, 소나무 주변을 둘러보세요. 다른 식물들이 있나요? 누런 솔잎들만 보이죠? 솔잎은 다른 나뭇잎과는 달리 잘 썩지 않아요. 솔잎 속에 잔뜩 들어 있는 끈적끈적한 송진이 잎을 썩지 않게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멀리서 다른 식물의 열매가 이사 온다하더라도 그 위에 솔잎이 떨어져 쌓이면 햇빛을 받지 못해 죽게 된답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p>남 산 의 신 화</p>		<p>신라의 옛 서울을 서라벌, 또는 새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되고 성스러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경주의 남산은 옛 서라벌의 궁궐인 월성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라고 불렀습니다.</p> <p>남산은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지이며 성지로 여겨졌던 신성한 산 이었습니다.</p> <p>아주 옛날 새벌은 산이 없는 평지였습니다. 어느날 동네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다가 두 신이 새벌로 찾아 온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산봐라!!”라고 외쳤습니다. 두 신은 발아래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놀라 발을 멈추었는데 다시는 발을 옮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p> <p>“산과 같은 사람 봐라!”라고 해야 할 것을 너무 놀라 “산!! 봐라”하고 외쳐 버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p> <p>두 신은 산으로 변했다고 합니다.</p> <p>남신은 바위와 붉은 흙으로 울퉁불퉁한 골짜기를 모아 쪽 뺨은 남산이 되고, 여신은 남산 서쪽에 아담하고 부드러운 망산이 되었습니다.</p> <p>두 부부의 신이 변해 남산과 망산이 되어 서로를 마주보며 정답게 솟아 있습니다.</p>
<p>세 계 문 화 유 산</p>	<p>역 사 적 의 의</p>	<p>남산은 금오봉과 고위봉 두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금오봉은 높이가468m,고위봉은 494m로 고위봉이 최고봉입니다.</p> <p>두 봉우리 아래 4~50여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돌로 만든 불상이 119체, 석탑 96기, 절터도 147개소가 남아 있으며 골짜기 마다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어서 노천 박물관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p> <p>신라인들은 남산의 바위 곳곳에다 수많은 불상과 탑을 만들고 절을 지어 놓았습니다. 또한 남산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BC57)도 남산의 산기슭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태어났으니 나라의 시작을 알린 곳 이며 포석정은 신라역사의 마지막을 알린 장소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곳 입니다.</p> <p>그러니까 남산은 신라의 시작과 끝을 알린 신성한 산이자 신라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며 숭상했던 성스러운 산이기도 합니다.</p> <p>이 산은 계곡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문화재가 있어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권태롭지 않는 곳이 바로 남산입니다.</p>
<p>배 리 이 름 의 유 래</p>		<p>삼릉을 설명해 놓은 안내판을 보면 삼릉이라는 말보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리입니다. 배리라는 것은 삼릉이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p> <p>신라시대에는 부모의 제삿날에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와서 불공을 드리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p> <p>남산 자락에 살고 있던 유림이라는 재상이 부모님 제삿날에 아는 스님을 통해 훌륭한 스님 한분을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재상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보이려는 과시욕도 있고 해서 가장 훌륭한 스님께 부모님의 제사를 부탁드려 큰 효도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유림은 부모님께 큰 효도를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스님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어 스님이 유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행색이 초라하고 불결하여 유림은 그 스님을 푸대접 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가만히 소맷자락에서 사자를 꺼내어 타고 산으로 올라가 바위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유림이 스님이 사라진 곳을 향해 절을 많이 하었다고 하여 절하는 동네라는 배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냉골		<p>입구에 오면 노송들이 우거져있어 좋은 인상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계곡은 금오산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름에도 항상 시원한 물이 흐르고 찬바람이 불어 냉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p> <p>남산 4~50개나 되는 골짜기들 중에서도 유적지와 유물이 제일 많은 계곡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계곡입니다.</p>
삼릉에 물린 왕들		<p>이 계곡에 3기의 무덤이 있어 삼릉이라고 합니다.</p> <p>신라는 992년을 통치하는 동안 56분의 왕이 계셨는데, 그 중 제8대 아달라왕,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의 왕릉이 이곳에 있습니다.</p> <p>먼저 제8대 아달라왕은 백제가 침입하여 백성들을 잡아가지 직접 군사를 일으켜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백제가 *화친을 요청해서 포로들을 석방하기도한 정말 용감한 왕이었습니다.</p> <p>제53대 신덕왕은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싸움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덕왕의 아들인 제54대 경명왕은 후백제의 견훤이 대야성을 침입할 당시에 고려태조 왕건과 손을 잡고 대야성 공격을 막아 내었습니다.</p> <p>모두 신라를 위해 싸웠지만 천년왕조를 유지했던 신라는 그 후에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물려주게 됩니다.</p>
무덤양식		<p>지금은 늪뎡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삼릉 또한 세월의 무게 앞에서 흙이 허물어지고 토끼나 여우 등의 짐승들이 굴을 파는 등 훼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왕릉은 53대 신덕왕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953년과 1963년에 도굴을 당해 내부를 조사한 결과 굴식돌방무덤으로 밝혀졌습니다.</p> <p>굴식돌방무덤이란 판 모양의 돌을 이용하여 널(관)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널 방벽의 한쪽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든 뒤 봉토를 씌운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무덤 내부에 채색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p> <p>현재위치에서 옆으로 50m정도만 이동하시면 신라 제55대 경애왕릉도 이곳에 있습니다.</p>
		<p>자!!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 하겠습니다.</p> <p>출발하기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시구요. 발걸음을 옮기실 때 급하게 걸으시면 넘어질 수 있으니 모두 산행이 끝날 때까지 안전산행을 기원 합니다.</p> <p>출발!!</p>

주제	세부 시나리오																									
진달래 산철쭉 철쭉의 구별법	진달래	<p>여러분, 이곳을 한번 보세요.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른 봄 여기 삼릉 주변에는 진달래 꽃이 하늘하늘 피어오릅니다. 봄의 전령사 진달래는 산성토양에서 생존력이 강해 경쟁자 없이 세력을 확장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숲이 내놓는 방어물질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전 험벗었던 산성토양인 산에는 키 큰 소나무 숲 아래 키 작은 진달래들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p>																								
	진달래의 전설	<p>진달래는 중국 촉나라 망제(望帝)인 두우(杜宇)가 위나라와의 싸움에 패한 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지 못 하고 죽자 두견새가 되어 밤새 울어 피를 토한 것이 진달래의 꽃잎에 떨어져 붉은색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진달래로 담근 술을 두견주(杜鵑酒)라고 부르는 것도 이 전설에서 비롯된 거랍니다.(출처 : 우리나라 나무이야기-제갈영,이동혁 저)</p>																								
	진달래와 철쭉과의 구별법	<p>여러분은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할 줄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오늘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3~4월경 꽃만 덩그러니 핀다면 진달래고요. 진달래는 꽃이 질 때쯤 잎이 나는데, 잎과 꽃이 같이 피는 것이 철쭉입니다. 철쭉은 둥근 계란형의 잎에 연분홍색의 꽃이 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철쭉이란 이름은 꽃이 아름다워 나그네의 걸음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척촉(擲燭)’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연분홍색 꽃이 핀다고 해서 ‘연달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진달래 꽃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참꽃’이라 부르는데, 철쭉에는 독성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지요.</p> <table border="1" data-bbox="432 1182 1455 1422"> <thead> <tr> <th></th> <th colspan="2">개화 시기</th> <th>꽃 색</th> <th>잎 모양</th> <th>잎 특징</th> <th>별 칭</th> </tr> </thead> <tbody> <tr> <td>진달래</td> <td>4월</td> <td>꽃→잎</td> <td>연분홍~자홍색</td> <td>넓은 피침형</td> <td>잎 뒷면에 갈색 털</td> <td></td> </tr> <tr> <td>철쭉</td> <td>5월</td> <td>꽃+ 잎</td> <td>연분홍색 + 적갈색반점</td> <td>계란형</td> <td></td> <td>연달래</td> </tr> </tbody> </table>						개화 시기		꽃 색	잎 모양	잎 특징	별 칭	진달래	4월	꽃→잎	연분홍~자홍색	넓은 피침형	잎 뒷면에 갈색 털		철쭉	5월	꽃+ 잎	연분홍색 + 적갈색반점	계란형	
	개화 시기		꽃 색	잎 모양	잎 특징	별 칭																				
진달래	4월	꽃→잎	연분홍~자홍색	넓은 피침형	잎 뒷면에 갈색 털																					
철쭉	5월	꽃+ 잎	연분홍색 + 적갈색반점	계란형		연달래																				
청미래덩굴을 먼저 설명하고 뒤에 덩굴식물 소개	<p>여러분, 이곳에서는 잠시 허리를 굽혀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산행을 하시다 보면 앞만 보고 아래쪽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래쪽에 있는 덩굴을 보고 갈까요. 전국의 산과 들, 나무 밑에 흔히 자라는 청미래덩굴은 가을철에 빨갱게 익는 열매가 매력적이고 윤기가 나는 둥근 잎과 가시와 덩굴손이 달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일부지역에서는 망개떡을 만들 때 이 잎으로 싹다고 하여 망개나무라고 부르는데 잎에서 나는 특유의 상큼한 향과 부패를 방지하는 성분이 있어 비교적 오래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덩굴식물이란 덩굴손, 뿌리, 줄기를 이용해 바위나 큰 나무를 감거나 붙어 자랍니다. 햇빛을 향해 위로 올라가서 나무를 덮어 강한 빛과 바람으로부터 숲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덩굴성 콩과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뿌리에 고정시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도 합니다. 이렇게 숲의 나무들은 서로 도우며 어울려 살아갑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때죽나무	이름의 유래	<p>여기 보이는 나무는 때죽나무예요. 이름이 특이하죠?</p> <p>때죽나무란 이름의 유래에는 나무껍질이 때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 안 씻으면 이렇게 될까요? 때죽나무는 아마도 엄청난 게으름뱅이인가 봅니다.</p> <p>유래에 관한 다른 얘기로는 열매와 잎에 에코사포닌이라는 마취성분이 강한 물질이 있어서 이것들을 잘게 빻아 고인 물이나 웅덩이에 뿌리면 물고기들이 때로 기절시켜 잡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p>
	꽃의 아름다움	<p>여러분, 때죽나무 안쪽으로 들어와 위를 한번 보세요.</p> <p>어때요? 꼭 밤하늘의 별들처럼 총총히 무리지어 있지 않나요?</p> <p>때죽나무는 5월 경 흰 종모양의 꽃이 피는데 서양에서는 ‘종 모양의 흰 눈’이란 뜻의 Snowbell, 혹은 ‘눈송이 꽃’이란 뜻의 snow-flake flower라고도 부른답니다.</p>
	오리나무	<p>여기 계곡 쪽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p> <p>물가를 좋아하는 물오리나무가 있습니다.</p> <p>옛날에는 요즈음처럼 거리를 알려주는 어떤 표시가 없어서 대략 5리마다 오리나무를 심어 이정표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오리나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방팔방오리나무 십리절반오리나무 이런 말도 있지만 요즈음은 오리나무를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사촌 짝 되는 물오리나무나 사방오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감나무라고도 불리는 오리나무는 나무껍질이나 열매에 타닌이 들어있어 붉은색 염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라면 20m 까지 크기도 하고 꽃은 잎이 나기 전인 이른 봄에 달립니다. 꽃가루를 한껏 머금은 수꽃 이삭이 가지 끝에 축 늘어져 달리고 그 둘레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붉은색 암꽃을 볼 수 있어요. 잎은 꽃이 질 무렵 나고 길쭉한 타원형입니다. 수꽃은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꽃가루가 쉽게 잘 휘날립니다.</p>
	산속 꽃들이 이른 봄 일찍 꽃 피고 열매 맺는 까닭	<p>키가 작은 풀꽃들의 꽃가루는 대개 곤충들이 옮겨 줍니다. 곤충들이 꽃가루받이를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나뭇잎이 가리기 전인 이른 봄 부지런히 꽃을 피우는 거랍니다. 나무가 울창해지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 숲이 그렇게 바뀌기 전엔 일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위치)</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봄을 알리는 생강나무	<p>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셋노란 개나리가 봄 인사를 한다면 산에 가면 셋노란 생강나무 꽃이 봄 인사를 합니다. 동그란 꽃망울이 벌어지면서 꼭 우산 모양처럼 작은 꽃들을 뭉쳐 달고 나뭇가지에 올망졸망 납작하게 붙어납니다. 가지나 어린잎을 따서 손으로 비벼 냄새를 맡으면 생강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생강이 조선시대 썸 들어왔는데 생강보다도 생강나무가 먼저 있었답니다. 잎을 말려 생강 대신 향료로 쓰기도하고, 동백나무가 자라지 않는 중북 이북 지방에서는 동백기름 대신 생강나무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으로 썼다고합니다. 그래서 생강나무를 강원도에서는 동박나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p>
	생강나무와 산수유를 어떻게 구분할까?	<p>생강나무와 산수유는 이른 봄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꽃모양도 비슷하고 같은 노란색이라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자세히 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강나무는 작은 꽃송이를 달고 있는 꽃자루가 짧고 꽃 전체를 달고 있는 자루도 거의 없어서 꽃이 가지 끝에 바짝 붙어 있는 꼴입니다.</p> <p>하지만 산수유는 꽃자루가 길고 생강나무보다 꽃송이가 작아서 성글어보입니다. 나무 줄기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 줄기 껍질이 너털너털 벗겨져 있으면 산수유예요. 산에서 보이는 건 생강나무고 마을 가까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건 대부분 산수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작살 나무	보랏빛 구슬의 열매가 탐스러운 작살나무	<p>하나의 줄기에서 작살처럼 퍼져나가는 가지와 잎 때문에 작살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작살나무는 8월에 분홍색의 꽃이 피며 크기가 작아 눈에 좀처럼 잘 띄지 않습니다. 10월이 되면 포도송이처럼 보라색의 열매가 맺습니다. 보랏빛 구슬의 열매가 탐스러운 작살나무는 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밀원용으로도 쓰이고 추위에 강해 우리나라 전국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화살나무는 화살촉처럼 생겨서 작살나무는 고기잡는 것처럼 뒤를 보면 작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p>붉나무</p>	<p>단풍하면 생각나는 나무가 있죠? 예, 단풍나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 해드리는 나무도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드는 나무니까 같이 기억해주세요. 지금 소개해드릴 나무는 붉나무라고 합니다. 가을에 아주 붉은 단풍이 든다고해서 붉나무라고 하는데요. 붉나무는 옷나무나 개웃나무와 무척 닮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붉나무는 잎 사이로 잎자루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또 옷나무는 마을 가까이에 심어 기르는 나무이고 붉나무나 개웃나무는 산에서 저절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잎을 한번 눈으로 세어보세요 작은 잎은 7~13개정도 되며 8~9월이 되면 꽃이 핍니다. 10월이 되면 작은 포도송이 모양으로 모여 열매가 달리며 열매가 익으면 짠맛과 신맛이 나는 흰가루로 덮이게 되죠. 소금이 귀한 산속에서는 소금 대신 이걸 썼다고 합니다. 또 옛날 두부를 만들 때 간수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니 붉나무는 우리의 눈도 즐겁게 해주는 나무이자 실생활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잎자루 날개에 오배자 진딧물이 기생하여 만들어지는 커다란 흑갈은 벌레집을 오배자라고 하는데 붉나무에 잘 생기기 때문에 오배자나무라고도 합니다.</p>
	<p>단풍이 붉게 물드는 이유</p>	<p>‘단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단풍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데 설악산, 내장산, 오대산 계룡산은 가을이 되면 탐방객들이 많이 찾게되죠. 하지만 단풍나무만이 가을에 붉게 물드는 것은 아니랍니다. 단풍나무 뿐만 아니라 붉나무도 가을이 되면 붉게 숲 속을 온통 물들인답니다. 그렇다면 왜 여름 내 푸르른 잎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드는 걸까요? 나뭇잎 속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있습니다. 녹색의 엽록소 외에도 빛을 흡수하는 색소로 70여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있습니다. 잎이 왕성하게 일을 하는 봄과 여름에는 많은 양의 엽록소(초록색색소)에 가려져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고 빛이 적어지면서 공기 또한 건조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잎은 수분부족 현상을 겪게 되어 나뭇잎은 수분 부족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이 활동을 멈추게 됨으로써 붉은색을 띠는 카로틴과 노란색을 띠는 크산토펴 그리고 안토시아닌(붉은색소)과 같은 색소가 엽록소(초록색소)보다 많아져 눈에 빨갛고 노란 색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단풍이 드는 것입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목 없는 불상)	<p>삼릉굴에서 처음 만나는 불상인데 머리와, 손, 대좌가 잘린 석조여래좌상입니다. 원래 계곡에 묻혀 있던 것을 1960년대 답사 온 학생들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위치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불상이 앞으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가사, 옷주름이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의의가 매우 큼니다. 신라시대부터 매듭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석굴암의 부처님이 입고 계신 옷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잘 기억해 보세요. 석굴암의 부처님 옷은 살결이 비치는 듯이 돌을 조각하여 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조각기술이 발달 할수록 불상을 표현 할 때 옷이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 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석불좌상의 부처님 옷은 양 어깨에 걸쳐져 있는데 이런 옷차림을 통견이라고 합니다.</p> <p>남산에는 불상이 많이 있는데 얼굴부분이 없는 불상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 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사람에 의해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옛날부터 문화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지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승유억불정책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태풍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상이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다가 약한 목 부분이 잘려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p> <p>삼릉계석조여래좌상에는 엉덩이부분에 이상한 홈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배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지상부와 수평이 되도록 다듬은 흔적이 있는데 바위에 박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p> <p>이곳에는 부처님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저마다 소원을 빌며 지나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p> <p>이곳의 단 위에는 조그마한 사탕 하나라도 항상 올려져 있는데 그 만큼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비는 마음을 표현 한 것 같습니다.</p> <p>여러분들도 종교에 상관없이 옛 조상들께 소원을 이야기 하듯이 한 가지 소원을 빌어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p>
	<p>*주)불상을 표현할 때 점차 인간의 신체에 가깝게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남. 중국의 영향을 받아 대략 7세기에서는 불상표현방식이 두텁고 투박한 반면, 8세기로 오면 당대<唐代>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표현양식이 조금 더 사실적이고 양감 있게 표현 됨. 9세기에 접어들면 다시 두터워지는 경향이 생김. 이것은 아무래도 절정기인 8세기에서 천천히 퇴보하여 양식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 그러나 어디까지나 양식이란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므로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시기별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면 됨.</p> <p>*주)승유억불 崇儒抑佛: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의 영향</p>

주제	세부 시나리오	
삼릉골마애관음불		<p>우뚝 솟은 바위 위에 무엇인가 새겨 놓은 것이 보이시나요? 궁금증을 가지고 보살님께서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관세음보살 이십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무’란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다스리시는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중생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구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러한 관세음 보살님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손과 눈이 부족할 정도라네요. 그래서 손이 천개 눈이 천개 달린 관세음보살님도 계십니다. 이곳의 관세음보살은 미소를 담은 입술에 선명한 붉은 색이 남아 있어 남산의 불상 가운데 인기가 무척 많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바위 앞면을 조금 다듬고 돌을새김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불이 새겨져 있으며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식도 하고 손에는 감로수를 담은 정병도 들고 계십니다. 저녁 황혼 무렵에 오면 황금빛으로 물든 관세음보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기와조각이나 건축물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아마도 지금처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p>
관세음보살전설		<p>여기서 재미있는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한 마을의 아낙네가 숲에서 호랑이를 만나 무서운 나머지 나무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큰소리로 외쳤죠. 그러나 주위에는 길을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마침 관음보살이 깨달음을 얻고 성불(成佛: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됨)을 하여 수미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아낙네의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관음보살은 너무나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도중에 수미산(고대 인도의 우주관에서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의 산)으로 가지 않고, 그 아낙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소중한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관세음보살은 세상과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성자(깨달은 사람)입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기림사 관세음보살, 불국사 관음전 후불탱화 속 관세음보살 참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관음보살”, “관자재보살”의 다양한 이름으로도 부른답니다.</p>
마애불의 특징		<p>남산에는 마애불이 많이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놓은 불상을 마애불이라고 하는데, 바위에서 마치 튀어나올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배리 마을이름유래에 관한 설화를 보면 스님이 사자를 타고 남산으로 올라가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신라 이전의 사람들은 바위를 숭상하고 바위에도 부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화도 나오고 새겨놓은 불상도 바위에서 튀어나오는 듯한 형상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애불의 특징 중 하나는 훼손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여래좌상같은 경우에는 큰 바위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목이나 손처럼 가늘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려 부술 수 있었는데, 마애불은 바위에 거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훼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관음보살은 깨진 곳 없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신 분들의 소원은 아마도 다 들어 주실 것 같은데 한 가지씩 기도드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p>

--	--	--

주제	세부 시나리오	
팔배나무	팔배나무	<p>여러분, 지금 잠시 머릿속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 모양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 이 나무 이름과 팔 모양이 연관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는데요. 이 나무는 배꽃 닮은 흰 꽃이 5~6월에 가지 끝에 많이 모여 피고 팔 모양처럼 생긴 작은 열매가 열려 팔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배나무는 열매가 처음 열렸을 때는 팔 모양을 닮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할 수 있지만 .</p> <p>빨간 열매는 새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p>
	고사목	<p>나무는 살아있을 때 숲 속의 생물들에게 집이 되어주고 먹이를 제공하지만 죽어서도 자신의 몸을 영양분으로 제공하여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기 까지 합니다.</p> <p>고사목은 곤충의 아파트이므로 국립공원에서는 죽은 나무 하나도 매우 소중합니다. 죽은 나무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비와 바람에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버섯의 중요한 식사가 되고 고사목에는 개미나 많은 곤충들이 몸을 숨기거나 알을 낳고 이 벌레를 먹기 위해 새들도 자주 죽은 나무를 찾는데 이는 자연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순환하고 있습니다.</p>
	다람쥐	<p>앗, 다람쥐! 숲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일거예요. 혹시 도토리나 땅속굴로 들어가 버린 다람쥐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낮에만 활동하는 주행성동물이며 도토리나 밤을 즐겨 먹고 잎사귀가 넓은 참나무 숲이나 바위가 많은 돌담 같은 곳에 삽니다. 눈은 크고 검은색이며 볼에 주머니가 달려있어 잔뜩 먹을 것을 넣어 운반까지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p> <p>다람쥐는 가을이 오면 겨울잠 잘 준비를 하는데 땅속 깊이 긴 굴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다람쥐는 땅속 집에 잠을 자는 방은 물론이고 먹이 저장 창고까지 따로 두어 볼주머니를 이용해 입 안 가득히 도토리와 같은 열매를 넣어서 창고 안에 저장해 놓고 두고 두고 먹는답니다.</p> <p>꼬리는 다람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 사이를 이동하거나 나무 위를 올라갈 때 꼬리를 이용해 균형을 잡고, 두 번째는 다른 다람쥐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꼬리를 올려 신호를 전달하며 세 번째는 잠을 잘 때 몸 전체를 꼬리로 덮어 체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청설모	<p>청설모는 다람쥐의 가족 이에요.</p> <p>다람쥐와 청설모는 2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1층 땅에는 다람쥐가 살고 2층에는 청설모가 나무위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지요.</p> <p>청설모는 잣나무가 생산해내는 잣과 밤나무가 생산해내는 밤을 먹고 사는데 겨울잠을 자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푹푹이 살아간답니다.</p> <p>이유는 청설모에게는 옷이 두벌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여름에는 반팔로 된 얇은 옷을 입다가 겨울이 되면 긴팔과 두터운 외투를 입듯 청설모는 여름에는 회갈색의 옷을 입고 있다가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새까만 색의 털옷을 입는답니다.</p>
	(앞의 부연 설명) 다람쥐와 청설모의 대화	<p>청설모 : 난 너무 억울해. 사람들이 날 외래종으로 알고 미워하는데 나도 대한민국 토종이라구. 그리고 내가 친구인 다람쥐 널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어.</p> <p>다람쥐 : 말이 좋아 친구지! 네가 날 잡아 먹진 않지만 내가 맛있는걸 먹고 있으면 와서 뺏어 먹잖아 키가 20cm정도인 나보다 넌 5cm나 더 커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p> <p>청설모 : 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람쥐 너처럼 겨울잠도 안자고 집도 높은 나무 위에 제어 힘과 담력을 키우고 있지.</p> <p>다람쥐: 청설모 네가 힘을 키울 때 난 예뻐지기 위해 겨울잠도 자고 방 두 개짜리 집을 만들어서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침실로 쓰지 그래서 너보다 청결하고 예쁘지.</p> <p>청설모 : 다람쥐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중재 해줄 수 있는 하늘날다람쥐가 없어서 그런것 같아</p> <p>다람쥐 : 자연이 많이 파괴돼서 여길 떠났지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지?</p> <p>청설모 : 그래 예전에 비해 환경이 많이 오염 됐지. 맞아 자연이 예전같지 않아 여우와 담비를 피해 놀던 때가 좋았어. 우리 다람쥐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p>
	다람쥐와 청설모의 건망증	<p>다람쥐와 청설모에게는 건망증이 있어요.</p> <p>특히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는 심한 건망증이 있습니다.</p> <p>겨울이 되기 전 다람쥐는 어느 때보다도 바빠요.</p> <p>이유는 겨울잠을 자기 전 먹을 것을 저장창고에 넣어두어야 하기 때문이죠.</p> <p>다람쥐는 바쁘게 먹이를 찾아 입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 자고 일어나서 먹으려고 여러 곳에 땅을 파고 도토리를 숨겨 놓죠. 그리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람쥐만의 방법으로 흙으로 도토리를 숨기고 또 흔적을 없애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봄이 되어 도토리를 찾으려 하지만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려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땅속에서 씨앗이 나와 참나무가 되는 것이지요.</p>
	다람쥐와 청설모 만지지 마세요.	<p>숲 속에서 다람쥐나 청설모를 만나면 너무 귀엽고 양증맞은 외모 덕분에 다들 한번씩 만져 보고 싶어하는데 산에서 사는 다람쥐나 청설모를 절대로 만지면 안돼요.</p> <p>이들에게는 한탄 바이러스가 있어서 만질 경우 유행성출혈열을 일으켜 고열이 나다가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귀엽다고 만지면 큰일난답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선각육존불	<p>큰 바위 면에 새겨진 여섯 분의 부처님을 보실까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과 보살을 선각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선각이란? 선으로 그림이나 무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 합니다. 선으로 조각(음각)한 부처님이 여섯 분 계신다 해서 선각육존불이라고 부릅니다.</p> <p>왼쪽바위에는 서방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부처님을 새겨놓았으며 아미타 좌우에는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부처님을 향해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관음보살은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중생들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보살이며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비추어주는 극락세계에 계신 보살입니다.</p> <p>오른쪽 바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요.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로 인도 고대왕국인 카빌라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성문 밖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늙고 병들어 있는 인간의 생애가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과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불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석가모니를 깨달음을 얻은 큰 성인으로 숭상하게 됩니다.</p> <p>그래서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란 법당이 있지요. 큰 영웅이란 뜻인데 큰 영웅이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석가모니 좌우에는 각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새겨 놓았답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보살이고, 또한 ‘반야경’이라는 경전을 모아서 편찬한 보살로도 불리어 진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모든 보살의 으뜸이 되며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을 맡으면서 언제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p> <p>선각육존불에 새겨져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각각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왼쪽 바위에 새겨진 아미타불과 오른쪽 바위에 새겨진 석가모니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p> <p>석가모니불은 앉아있고 좌우의 보살들은 서있는 반면에 아미타불은 서있고 좌우의 보살들은 앉아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서계시는 이유는 다른 곳과 달리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p> <p>바위 위에는 훼손을 막기 위해 빗물을 옆으로 돌렸던 배수구가 아직도 남아 있고 지붕의 기둥을 세웠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p> <p>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앞쪽에 남아 있는 석조물(탑신석)로 보아 예전에는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p> <p>선각육존불을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신라의 뛰어난 불교 미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각으로 조각된 불상은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장소로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p>바위에서 흙이 되는 과정</p>	<p>바위 위에는 누가누가 살고 있을까요? 소나무나 회양목 노간주나무는 바위 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소나무는 햇빛만 있으면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회양목은 4~5월 바위 가운데, 틈새에 보면 노란색 꽃을 피운답니다. 노간주나무는 햇빛 잘드는 바위 상부에 보면 이 나무가 자라고 있을거예요</p> <p>바위는 풍화작용 등으로 암석이 잘게 부서져 흙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큰 나무의 뿌리는 암석의 절리나 성층면을 따라 들어가면서 틈을 넓히기도 합니다. 딱딱하고 건조한 바위에 처음엔 이끼와 같은 식물이 생겨나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거기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며 나무뿌리는 바위 틈새를 비집고 점점 굵어집니다. 가냘프게 보이는 어린 식물의 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를 쪼개고 갈라지게 하여 결국 흙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p>
	<p>이끼</p>	<p>적당한 습도, 온도, 빛 세가지 조건만 맞으면 다른 식물이 살기 어려운 바위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살아갑니다 이끼는 단단한 바위겉면에 다른 식물들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작은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녹색으로 파릇파릇 돌아난 이끼가 보이시나요? 이끼는 물 속에서 땅 위로 올라와 적응한 최초의 식물로 산이나 강가의 그늘지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답니다. 또, 이끼는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햇빛을 싫어하는데 아마도 수분의 증발이 심해지면 말라죽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p> <p>하지만 아스팔트와 바위틈, 시멘트 벽에서도 자라는 특유의 적응력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평소에는 메말라 죽어있는 듯 보이지만 비가 내리면 빗물을 듬뿍 받아 파릇파릇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p> <p>이끼는 식물 중에서도 가장 발달이 덜 되어서 잎과 줄기의 구분이 없고 물관이 발달하지 않아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이끼는 몸 전체가 잎과 같은 역할을 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는데 땅 속에 흰 실같이 생긴 것은 헛뿌리라고 해서 이끼를 땅에 붙이는 구실만 한답니다.</p>
		<p>혹시 여러분은 이끼의 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끼는 꽃을 피우지 않는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로 번식하는 일반적인 식물들과는 달리 이끼는 포자로 번식하는데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떠다니다가 적당한 곳에 닿으면 포자가 발아하여 자란답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이끼의 쓰임새		<p>이끼는 수분을 머금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등 숲과 자연에도 매우 중요한 존재지만 사람에게도 그 쓰임새가 다양해서 매우 유익하답니다.</p> <p>예를 들면 무기질이 풍부하여 비료로 이용되고 있고 습보다 흡수력이 좋아 1차 대전 중 캐나다 군대는 붕대에 넣어 쓰기도 했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끼를 잘 말려서 습진이 생긴 부위에 붙이거나 젖은 이끼를 화상 부위에 붙여 상처를 치료하기도 했답니다.</p> <p>그뿐만 아니라 오염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 식물로 이용하고 광물이 풍부한 토질에서 자라는 이끼를 이용해 매장된 광물을 예측할 수도 있답니다.</p> <p>또 이끼는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 주고,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p> <p>새들에게도 이끼는 더 없이 중요한데 새끼들을 키우기 위한 등지의 재료가 되어 아기 새에게 폭신한 침대가 되기도 합니다.</p>
	삼릉곡 선각여래좌상	<p>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각으로 조각된 부처님이십니다. 여기 보이는 바위는 약10m되는 바위에다 부처님을 또 한분 새겨 놓았습니다.</p> <p>불상과 대좌는 바위에 자연적으로 생긴 긴 가로와 균열을 이용하여 나뉘어져 보이도록 조각해 놓았습니다. 남산에 있는 다른 불상들과 다르게 삼릉곡 선각여래좌상은 유일하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p> <p>부처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술이 두텁고 얼굴표정이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어서 다른 불상에서 나타나는 세련되고 단정한 얼굴 모습과 달리 다른 느낌을 주는 불상입니다.</p> <p>여러분 이 불상을 보고 있으면 마치 바위 속에 숨어 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에는 누추한 옷차림으로 내려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p> <p>또한 이곳의 부처님을 잘 살펴보면 연꽃위에 앉아 계시고 손모양은 왼손과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과 첫째 손가락을 마주보게 하고,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오른 팔목에 오른 손바닥을 밖을 향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부처님의 손모양 즉 수인법을 *설법인(說法印)이라고 부릅니다.</p> <p>*주)설법인이란? 부처가 깨달음을 얻어 그를 따르던 다섯 수도자에게 처음으로 설법할 때 취한 수인법입니다.</p> <p>즉 부처가 최초로 설법할 때 취하던 손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손가락 하나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숨어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리고 이곳 바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세요. 경주의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어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산의 자연환경도 한 번 둘러 보세요. 이곳은 남산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p>
	화강암	<p>바위 앞에는 화강암 풍화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작용을 구상풍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등근 부분이 화강암의 핵이고 곁에 푸석푸석해 보이는 것이 푸석바위입니다. 남산에는 핵이 빠져나간 푸석바위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호수에 가면 핵이 빠져나간 푸석바위 모양이 하마가 하품을 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하마의 하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바위도 있습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참나무	<p>지금 보시는 나무가 도토리를 만들어내는 나무예요. 이름은 진짜나무라는 뜻에서 참나무라고 부른답니다.</p> <p>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봄소풍간다.~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제가 갑자기 다람쥐에 관한 노래를 부른 이유는 바로 다람쥐, 반달가슴곰, 청설모가 제일 좋아하는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보여 드리고자 해요.</p> <p>참나무에게는 사이좋은 형제들이 있는데 6명의 형제들을 소개할게요.</p> <p>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랍니다.</p> <p>그 중에서 참나무 여섯형제 중에 으뜸은 상수리나무예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을 정도로 도토리의 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p> <p>그런데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는 졸참나무에서 열리는 도토리라고 하네요. 다람쥐가 먹기에는 졸참나무 도토리가 다른 것에 비해 덜지 않다고 합니다.</p> <p>여섯 형제들은 생긴 모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도토리 모양도 잘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어요.</p> <p>특히 상수리나무의 도토리는 왕관을 씌워 놓은 것과 같아서 도토리왕자님이라 부릅니다.</p>
	참나무 이름유래	<p>조선시대 때의 일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 모두들 피신 해 있을 때 먹을거리가 굉장히 귀했답니다. 임금님께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 막막했던 수랏간 사람들은 고민하던 차 도토리묵을 쭈어 임금님께 올렸어요. 임금님은 맛있게 먹었고 궁으로 돌아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항상 수라상에 묵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묵이 바로 상수리 나무의 도토리 인데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온 나무라 해서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p> <p>옛날 우리 선조들은 신발 대신 짚신을 많이 신었죠. 특히 붓짐 장수들은 먼거리를 걸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짚신을 하나 더 챙겨서 다녔는데 붓짐 장수 짚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바닥이 망가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신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 참나무 잎으로 바닥에 덧대어 신으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참나무가 신갈나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죠?</p> <p>참나무 형제 중 잎이 가장 크고 넓적하게 생긴 것이 떡갈나무예요.</p> <p>지금과 같은 방부제가 없던 시절, 끼니를 떼우기 위해 떡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여름에는 쉽게 상하는데 이 떡갈나무 잎에다 떡을 싸서 다녔더니 덜 상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떡갈나무 잎에는 정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떡을 찌때 바닥에 깔아 사용했다고 합니다.</p> <p>손가락으로 나무껍질을 꺾꺾 눌러 보세요. 보통 소나무와는 달리 푹신푹신하죠? 이 나무는 굴참나무예요. 굴참나무는 꺾이 껍은 참나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두꺼운 굴참나무의 꺾질은 코르크가 발달하여 보온과 방수가 뛰어나 옛날에는 꺾질을 벗겨 지붕을 덮었습니다. 또는 와인뚜껑 만들 때 사용한 나무입니다.</p> <p>갈참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제일 예쁘게 물들어 가을의 참나무예요.</p> <p>졸참나무는 졸병나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p>참나무 숲에서 소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까닭</p>	<p>참나무들은 소나무들과 알게 모르게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어울려서 자라지 못해요. 소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 잘 자랄 수 있는 양지식물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다른 식물들이 주변에 싹 트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을 내어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작용을 타감작용이라고 하네요.</p> <p>참나무들과 같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넓은 잎나무가 주변에 있다면 처음에는 소나무가 햇빛을 받아 잘 크지만 천천히 넓은 잎으로 햇빛을 다 흡수해 버려서 끝내 소나무는 참나무에 가려 죽게 되며 소나무 숲이 참나무 숲으로 천천히 바뀌어 가게 됩니다. 가끔 참나무 숲에 가면 누렇게 죽어 가는 소나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p>
	<p>숲은 천천히 완전한 모습으로 변해가요.</p>	<p>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는 늘 같은 자리에 서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p> <p>숲은 오랜시간에 걸쳐 변해가는데 이것을 숲의 천이라고 합니다.</p> <p>처음에는 한해살이 풀인 강아지풀, 민들레들이 들어와 다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이어서 여러해살이풀, 가시가 많은 작은 키 나무에서 큰키나무인 소나무가 들어옵니다.</p> <p>소나무는 이때 사람이나 다른 식물들이 숲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톤치드라는 살균식물을 내뿜어요. 소나무 밑에서 참나무들이 기를 펴지 못하게 되지만 참나무들이 점차 키를 키워 언젠가는 소나무를 누르고 이 숲의 대표나무가 됩니다.</p> <p>치열한 경쟁을 멈추고 숲의 안정된 상태가 되면 서어나무가 나타나는데 이를 극상단계라 합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p>보물제66호삼릉곡석불좌상</p>	<p>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오면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상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에 보수를 하려는 생각으로 시멘트로 보수했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예뻐지만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p> <p>불상의 얼굴 아래로는 시멘트를 발라 놓아 흉측하기가 말 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p> <p>이곳을 보면 많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매우 쉽고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p> <p>이점에 대해 여러분들도 한 번 짚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p> <p>먼저 부처님의 옷을 보면 우견편단이라 하는데 오른쪽으로 어깨를 드러낸 옷 모습을 말합니다. 목없는 불상에서 본 옷은 통견이라는 것은 기억나시죠? 반대로 왼쪽 어깨를 드러낸 옷은 좌견편단입니다.</p> <p>손모양은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대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해놓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무릎위에 놓은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p> <p>부처님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으로 부처님의 종류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p> <p>전체적으로는 가슴이 발달하여 당당하며 자세가 안정감이 있는 부처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p> <p>불상이 앉아 있는 대좌의 연꽃 조각도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8세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p> <p>그리고 이곳에는 전각이 지어졌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자연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노천불 이었다고 주장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곳의 지형적인 것으로 보아 아래 계곡 쪽에 금당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p> <p>지금은 복원이 완료되어 완벽한 모습으로 이 남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원을 빌면 다 들어주실 것 같은 자비로운 모습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상 앞쪽에 있는 바위위에 놓여있던 탑과 석등은 자기 자리를 잃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탑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있지만 석등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든 오래된 것이 아름답고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때가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 후손들은 문화재가 오래도록 아름답게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 지킴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p>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면 내리막길이라 조금 위험 하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p> <p>*주)향마촉지인이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왕(4만 8천 가지의 악귀)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의 표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p>
<p>상선암</p>	<p>이곳이 바로 상선암 입니다.</p> <p>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암자가 있죠.</p> <p>많은 등산객들이 이곳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쉬면서 온 길을 되돌아보며 숨을 가다듬</p>

	<p>고 쉬어가는 곳입니다.</p> <p>이곳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에게 떡도 자주 나눠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산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인심 좋은 할머니 이시죠. (오늘은 떡을 안 주시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가요? 호호.)</p> <p>조금 쉬셨다면 이제 계단을 조금 올라가도록 할까요? 아주 큰 부처님께서 저희를 반겨 주실 겁니다.</p> <p>지금 계신 곳에서 옆으로 살짝 오시면 조금 긴 바위가 눕혀져 있는데 자세히 살펴 보세요.</p> <p>그냥 바위인데 조금 이상 한 것 발견 하신 분 계세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형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선각 보살상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서 형체를 알아 볼 수가 없는데 몸의 일부분만이 선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희미한 선각은 바위가 물을 먹는 날 그러니까 비가 내린 후에 오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삼릉곡마애석가여래좌상</p>	<p>여러분 이곳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용히 모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p>여기를 보세요.</p> <p>앞에 계신 큰 부처님을 보실까요?</p> <p>남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부처님 이십니다만 앉아 계시는 불상 중에는 제일 큰 부처님 이십니다.</p> <p>커다란 바위에 앉아계신 모습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높이가 약6m되는 불상으로 부처님의 눈은 마치 중생들을 굽어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p> <p>바위 속에서 얼굴을 내밀며 홀연히 나타나시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p> <p>부처님의 머리에서 어깨까지는 입체감 있게 새긴 반면에 그 밑으로는 얇게 조각을 한 것을 알 수 가 있는데요.</p> <p>신라인들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바위를 숭배하는 민간신앙이 있었는데, 민간신앙과 불교의 사상이 섞여 신라인들만의 개성 있는 불교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이 불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p> <p>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머리 부분만 돌을새김하고, 몸 아래쪽은 선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p> <p>얼굴은 풍만해 보이지만 눈은 초승달 같아 보입니다. 코는 탐스럽게 정말 높이 솟아 있습니다. 요즘 코 성형을 많이 하는데 정말 멋진 코를 갖고 계신 부처님 이십니다.</p> <p>전체적인 모습은 조금은 엄숙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꼭 하나는 이루게 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기도드리면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왼쪽능선으로 이동하면 넓은 바위가 나옵니다. 다시 힘내어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p>
<p>바둑바위</p>	<p>그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말 이곳에 신선들이 계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p> <p>신라의 첫 시조가 태어나신 나정을 비롯해서 신라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포석정도 한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금의 경주 전역을 볼 수 있어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p>

		<p>앞에 보시면 주변의 전경사진을 저희 국립공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잘 보시고 주변을 살펴 보시면 유적지의 방향을 더욱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p> <p>다 찾으셨죠.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p>
	금 오 산	<p>여러분들 혹시 김시습이 쓴 최초의 한문소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p> <p>...</p> <p>네 맞습니다</p> <p>조선시대 대학자이며 생육신의 한 사람인데 남산의 금오봉아래 용장사에서 7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할 때 쓴 소설이 바로 금오신화인데 이곳의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p> <p>이곳 남산은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긴 경주국립공원의 남산에는 신라인들의 신앙이 살아 숨 쉬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아직도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때로는 쉼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부처님이 계셔서 신라의 찬란했던 역사를 대변해 주시는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의 역사도 약속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p>
	끝 인 사	<p>오늘 자연과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이 남산이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p> <p>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p> <p>하루를 안전하고 즐겁게 마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수고가 많으셨습니다.</p> <p>이상으로 삼릉에서 바둑바위까지 자연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 <p>저는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안내원 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p>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 고 자 료	<p>■ 왕릉의 능,총,묘,분의 구분</p> <p>먼저 경주를 다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산처럼 커다란 무덤입니다. 삼릉, 오릉, 김유신장군묘, 김인문묘, 천마총, 금관총, 000호 고분 등 경주에는 수많은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무엇인가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룡, 총, 분, 묘로 나뉜다는 사실을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능총분묘로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p> <p>능은 주로 삼릉, 오릉, 무열왕릉, 문무대왕릉, 미추왕릉 등이 있습니다. 능은 신분이 확실한 왕의 무덤에 붙어 왕릉을 가르키는 말입니다.</p> <p>천마총, 금령총, 금관총 등의 총이 끝에 붙은 무덤은 발굴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그 무덤의 피장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 무덤의 대표적인 특징에 따라 “특징” 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로 금관이 나온 피장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덤은 금관총이라는 이름이 붙고, 발굴을 해봤으나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던 황남동에서 가장 큰 무덤은 황남대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마도가 나온 피장자를 알 수 없는 무덤인 천마총이 있습니다.</p> <p>151호 고분, 98호 고분 등 00분으로 끝나는 무덤은 피장자의 신분이 밝혀지지도 않고 발굴도 하지 않은 무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151호 고분, 98호 고분으로 불려지던 두 고분이 발굴후에 천마총, 황남대총의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p> <p>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할아버지의 묘에 붙는 무덤의 이름입니다.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왕의 무덤이 아닌 무덤은 묘라고 합니다. 김유신 장군묘, 김인문묘, 간묘 등 일반인의 무덤을 묘라고 합니다. 우리네 할아버지의 무덤도 000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유명하지는 않을 뿐입니다.</p> <p>모두 기억 할 수 있겠죠. 알아 두시면 문화재를 이해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p>

구분	보충자료 정리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참고자료</p>	<p>■ 삼릉계곡</p> <p>삼릉계곡은 지금은 삼릉계곡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계곡이 잣밭골 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잣밭골이란 잣밭, 즉 잣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p> <p>삼국유사에서는 가장 전성기 때의 경주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전성기 때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 초가집이 아닌 기와집이 17만 3986호가 바둑판처럼 놓여져 있었고, 절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았고, 탑이 놓인 모습은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묘사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17만 8936호나 되는 집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식량 등의 수급을 어떻게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오늘날이야 운송수단이 발달하여 식량 및 생활용품을 운송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신라시대에는 멀리서부터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서 소모품들을 생산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오늘날까지도 까막골이라고도 불리는 현동은 숯을 만드는 동네였습니다.</p> <p>잣밭골 역시 잣을 많이 생산하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라때부터 내려오는 이름 중에는 잣과 관련된 이름이 몇 있습니다. 백률사가 그렇고, 자추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경주는 서라벌이었을 때 잣이 많이 생산되던 잣특산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p> <p>오늘날에는 잣나무대신에 수많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삼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에는 안개 낀 삼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잣나무가 없어진 지금에 와서 굳이 잣밭골이라고 부르기는 어색할 수도 있으니 삼릉계곡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p>